

## 「하면 된다」란 信念과 創造力의 所有者

本會 第6代 會長에 選任된 李洛善會長

지난 2月 28日에 열린 本會 第16次 定期總會에서 李濬회장의 뒤를 이어 選出된 第6代 李洛善회장은 뛰어난 創造力에다 무엇이건 「하면 된다」는 信念의 所有者로 定評을 받고 있다.

27年 慶北 安東郡 豊山面에서 태어났으며 東亞大, 慶熙大大學院에서 政治學을 專攻했다. 61年 5.16革命 후 最高會議議長秘書官때 砲兵大領으로 예편했고 63년부터 初代 國세청장으로 발탁되기전 근 3년동안 大統領 민원비서관에 재직하면서 당시 가장 큰 課題였던 “근대화 정책수행을 위한 조세행정”을 연구하기 위해 大統領 특명으로 이의 特別調查團長으로 일했다.

69년부터 10년동안 大韓排球協會長, ASIA 排聯副會長을 맡아 國위선양과 저변확대에 기여한 功이 크며 73년부터 4년간 K.O.C. 위원으로 활약 69年 商工部長官에 취임한후 수출진흥책의 일환으로 디자인포장센터를 창설, 초대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74年 9월 건설부장관을 사임한후 76年 한국 기술검정公團 初代理事長, 70年 국제기능올림픽大會 한국위원회會長을 맡아 국제기능올림픽大會에서 堂堂 3連霸를 記錄하여 技能韓國을 立證케하고 온 국민을 熱狂케 했다. 79年 10.26사태후 昌原技能大學 초대이사장등 모든 공직을 사임하고 80년초부터 84年 5월까지 롯데그룹부회장, 롯데상사회장, 롯데호텔사장을 지냈으며, 83년부터 현재까지 國稅同友會 회장을 맡아 왔다. 大統領功勞表彰과 大韓民國 黃條素星勳章, 靑條근정훈장, 金塔산업훈장, 體育훈장맹호장, 11회 대한민국 체육상을 비롯하여 자유중국대수경성훈장, 니제공화국 大勳章, 엘살바도르 大銀十字훈장, 벨기에 레오폴드 2世 大十字훈장을 받았으며 成均館대학교에서 명예경제학박사, 自由中國중국문화학원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은바 있다.

趣味는 바둑, 登山, 골프등 다양한 편.

### TV

〈自然讚美프로〉

「전국일주」새프로

KBS-TV—「海岸線 3千里를 가다」放映시작

自然다큐멘터리 속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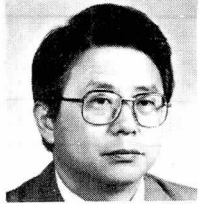
MBC-TV—「休戰線의 四季등」力作 着手

○...3월에 접어들어 MBC 自然다큐멘터리프로는 「꿀벌의 世界」와 「野生동물의 世界」등 力作을 放映. 얼마전 뉴스데스크 時間에서는 濟州大學에서의 自生風蘭·寒蘭培養試驗 성공현장을 소상히 紹介. 여기서도 남획, 훼손된 自生風蘭의 自然復歸를 위한 濟州大 시험팀의 피나는 노력과 本格的인 移植試驗計劃을 엿볼 수 있어 흐뭇.

한편 自然다큐멘터리 現地踏査와 企劃을 맡고있는 某氏는 이밖에도 同 TV가 心血을 쏟고 있는 「休戰線의 四季」와 「動物의 天敵」을 來年 2月頃이 돼야 방영될 듯하다는 귀뜸이기에 期待된다.

○...本誌 34號 「自然의 映像」에 紹介된 바있는 「雪嶽山의 4季節」 製作者 宣映 시청각교육원 金正明원장은 3月 3日밤 KBS-TV 「11時에 만납시다」 프로에 招待되었는데 고달픈 作業을 해낸 사람에게 큰 勇氣와 보람을 느끼게 해준셈.

○...한편 KBS-TV는 自然과 人間의 삶을 길고 깊이있게 照明해준 長期프로 “全國一周”와 “앨범 韓國百景”이 靑少



## 美國에서 造景學을 專攻한 學究派

本會 學術擔當副會長에 選任된 吳輝泳博士

本會의 87年度 第16次 總會는 圓光大 農大林業科教授로 赴任된 바있고 82년 2월부터 本會의 學術擔當副會長으로서 많은 勞苦를 했던 任慶彬博士의 後任에 70年代初부터 우리나라 造景學界에 우뚝 솟아올랐던 漢陽大環境科學大學院 教授이며 韓國造景學會會長을 거쳐 81년부터 韓國造景聯合 會長을 맡고 있는 吳輝泳博士를 選出했다.

吳副會長은 37년 서울 中區 乙支路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中高等學校를 卒業했으며 65년 渡美留學, 71년 일리노이州立大學院에서 造景學 碩士學位를 받았으며 한때 일리노이州政府에 勤務하기도 했다. 그후 日本大阪府立大에서 農工學博士學位를 받은 그는 72년부터 80년까지 大統領經濟秘書室에서 秘書官(造景·觀光地開發·觀光振興·特定地域開發·建設擔當等)으로서 幅넓은 活動을 했으며 서울大環境大學院과 嶺南大에 出講하면서 우리나라 造景分野育成的의 基礎作業을 主導했다.

吳博士는 顯忠祠, 烏竹軒, 忠烈祠, 制勝堂

등 護國顯彰施設의 復元事業을 비롯하여 慶州 綜合開發 10個年事業, 雪嶽山觀光綜合開發事業 등을 主管하여 그 業績을 남겼으며 80年初 大統領秘書室을 떠나 國務總理 行政調整室 第3행정조정관(관리관)으로 승진하여 서울시 업무를 관장하기도 했다.

現在 漢陽大 環境科學大學院에서 後學指導에 專念하고 있다.

IFLA(世界造景聯) 韓國代表, 獨立記念館 建立推委企劃委員, 季刊“환경과 조경” 發行人, 서울市 都市計劃委員, 文化財管理局諮問委員, 建設部建築委員 및 中央設計審查委員, 올림픽諮問委員, 韓國觀光公社理事, 內務部全國土公園化運動諮問協議會위원, 범민족 올림픽推進委中央協議會運營委員, 土地開發公社技術諮問委員, 總務處政策諮問委員등 매거하기 어려울 정도.

紅條勤政勳章과 85年末 大統領表彰章을 받았으며, 自宅은 서울 江南區 淸潭洞 三益아파트 7-1101號, 趣味는 油畫, 登山.

年 정심순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란 호평. 아침 7시 40분 방영시간대가 출근, 등교, 준비에 쫓기는 시간이란 약점도 있긴하나人氣는 대단. 3月 23日부터 「전국일주」의 새로운 「海岸線 3천리를 가다」가 같은 시간에 放映됐는데 高城의 統一展望台와 最北端의 명파마을과 명파국교야동의 구김살없는 면학분위기, 金剛山日出峰, 玉女峰등 몇개의 봉우리를 뚜렷이 보여주기도 하여 감탄. 이 프로는 앞으로 東海絶景을 따라 南下, 閑麗海上國立公園-多島海海上國立公園-西海로 北上하면서 瑞山海岸國立公園을 비롯한 바닷가 生活의 哀

歡과 文化, 風物을 파헤치면서 西海 최북단인 翁津군 白翎島 “두무진”의 絶景에 이르기까지 비취주게 된다는데 內陸과 海岸, 島嶼를 철저히 綜合한 『國土모습』을 담은 巨作이 마무리 되는 셈이다. MBC는 또 4月 11日 오전 9시부터 「신國土紀行」을 放映한다고 예고 하였다. ○...지난 2月 15日밤 KBS 全州放送局 「로칼프로」에는 이날 南原市 文化院에서 개최된 本會 智異山국립공원 全北支部의 創立총회와 현판식, 임원선출 내용등을 보도하여 公園운동에 앞장선 이곳 회원들과 뜻있는 분에게 큰 관심사가 되었다. (珠)